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4~9/3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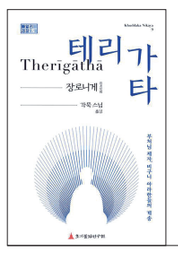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당신이 길입니다	김준영	민족사
3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4	한글 아미타경	김현준	효림
5	관무량수경	김현준	효림
6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7	붓다의 호흡과 명상(1)	정태혁 역해	정신세계사
8	우리말 불설미륵경	원순	법공양
9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10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원학 번역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2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운주사	틱낫한/허우서,허주형
3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 백문백답	이솔	일창 담마간다 편역
4	가 장행복한 공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청화 지음
5	불멸(1)	지혜의눈	이각 지음
6	불멸(2)	지혜의눈	이각 지음
7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이층버스	원빈스님 강설
8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	운주사	한상희/용정운 그림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지음
10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맑은소리맑은나라	월호

부처님 비구니 직계 제자의 깨달음 노래



테리가타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만5000원

장로 게송 〈테라가타〉 이어
73 장로니의 522 게송 완역
행장 등 810개의 주해 달아
11월까지 초기불전학림 강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테라가타〉에 이어 최근 〈테리가타〉를 완역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마음이 잘 삼매에 들고
지혜가 이미 현전하고
바르게 법을 꿰뚫어 보는데
우리에게 여인이 됨이 도대체 무슨 문제랴."

–소마 장로니의 게송 중에서

부처님의 비구니 직계 제자인 73 장로니(長老尼)의 522개 게송을 담은 〈테리가타〉가 우리말로 완역됐다.

〈테리가타〉는 장로니를 뜻하는 '테리'와 게송을 뜻하는 '가타'의 합성어로, '장로니들에 의해 읊어진 게송들'로 풀이된다.

번역을 맡은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3월, 비구 직계 제자 259 장로의 1279개 게송을 완역한 〈테라가타〉(전 3권)를 출간한 바 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빠알리 경장인 〈쿳다까 니까야〉에 포함돼 전승되고 있다.

〈테리가타〉에는 게송과 장로니 스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에, 각묵 스님은 담마빨라 스님이 지은 〈테리가타 주석서〉를 함께 번역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석서는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장로니의 출신 지역과 계급, 출가 계기, 출가 연령 등을 '행장'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묵 스님은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16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51쪽의 〈테리가타〉를 번역하고, 여기에 810개의 주해를 달아 전체 528쪽 분량으로 완역했다. 〈테리가타 주석서〉에서 각 게송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고,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인용해 보완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권두에 쓴 '해제'다. 〈테리가타〉에 실린 522개 게송 중에는 부처님이 장로니들의 발심을 위해 읊은 26개 게송과 합송자들이 읊은 게송, 다른 장로가 특정 장로니를 위해 읊은 게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묵 스님은 해제와 주해를 통해 이에 대한 출처를 모두 밝혔다. 또 빠알리 용어 해설, 〈테리가타〉의 구성, 게송에 적용된 운율, 〈테리가타 주석서〉의 구성과 전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묵 스님은 "성차별이 당연시되던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게송과 행장을 기록·전승한 것은 세계 종교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며 "수메다 장로니가 〈테리가타〉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대 모든 사부대중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오(染汚)를 일으키고 탐욕의 빛바램을 체득해 해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제22기 초기불전학림에서 〈테리가타〉를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055-322-8579

철학자와 떠나는 유식 여행

〈唯識〉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지음

모과나무 / 1만9000원

'꿈'과 '가짜'로 풀어내는 유식
실재론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불교 철학 가운데서도 유식(唯識)은 가장 난해한 사유 체계로 꼽힌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라는 선언에 곧장 의문이 솟아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책상과 의자, 돌과 나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울 속의 물고기〉는 '마음이 본체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기 위해 '마음'을 '꿈'에 빗대 설명한다. 꿈속에서 볼 법한 모호하고 무질서한 형상들을 통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날며, 때로는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게 된다. 저자는 우리가 '깨어 있다고 믿는 현실' 역시 꿈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언젠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지금의 경험 또한 마음의 산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유식에서 말하는 '가설(假設)'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임시로 정해 놓은 가짜'일 뿐이라고 말한다. '장미'라는 말이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 동시에, 치명적인 매혹을 가진 여인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언어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알면 그 실체까지 알았다고 착각한다. 유식은 바로 이 언어적 집착을 깨뜨리며, 세계를 보는 시야를 한층 자유롭게 확장한다. 저자는 거울이나 등잔불의 비유를 통해 "자기 마음이 지각한 것이 반드시 세계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라는 유식의 통찰을 전한다.

책은 2023년부터 2년간 '법보신문'에 연재한 에세이를 가려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유식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로 〈인왕경소〉, 〈해심밀경소〉(1~8권)를 역주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수진 스님의 '십지품' 해설



청량국사화엄경소초 54

청량징관 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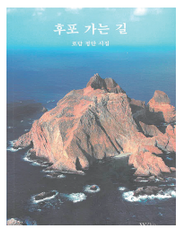
관허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 2만5000원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이 2020년부터 100권을 목표로 역주 중인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제54~63권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6차분 10권은 '십지품'을 담고 있다. '십지품'은 보살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품이다. 수진 스님은 "직역으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역 출판으로 청량 국사에 대한 더욱 깊고 넓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0년 출가 수행자의 발자취



후포 가는 길

로담 정안 스님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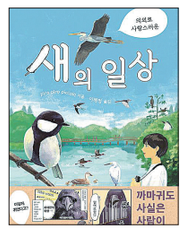
백조

1만2000원

"이 세상 / 내가 하는 일에 / 출가가 최고 행인 줄 알았는데 // 모두가 하는 일 가운데 / 가장 편한 것이었네." -시 '삶' 전문

로담 정안 스님이 10년 만에 펴낸 시집이다. "모든 말이 시어(詩語) 아님이 없고 모든 시어가 노래 아님이 없다"고 말하는 스님은 126편의 시를 통해 출가 수행자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답지 못한" 우리 사회를 경책한다. 정안 스님은 송광사로 출가해 해인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장·문화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 종단 안팎의 소임을 두루 거쳤다.

일상 속 새들의 소소한 하루



의외로 사랑스러운 새의 일상

piro piro piccolo 지음

이혜정 옮김 / 수류책방

1만6800원

참새, 비둘기, 까마귀, 제비, 찌르레기….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새들의 소소한 하루를 귀엽고 유쾌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만화책이다.

'참새들의 샤워 타임', '더위를 타는 까마귀', '무신경한 멧비둘기', '초보 휘파람새의 도전'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새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숨겨진 독특한 습성과 성격이 드러나고, 평범한 풍경 속에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일본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때로 유쾌하고 때로는 엉뚱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일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화림산책 花林散策

스님이 한시漢詩로 들려주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 한시 408수

묵암默庵 지선志禪

스님은 근세의 선장禪丈이신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선사의 법제자인 벽안碧眼,1901-1988화상의 문인이다. 종범스님이 경봉 - 벽안 - 묵암으로 법맥이 이어졌다고 대중에게 선언한 바 있다. 묵암스님은 평생을 수선修禪에 거처하고 때로 포교布敎에 힘을 기울인 선자禪者이다. 그런데 방선放禪의 여가에 드문드문 한시漢詩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은 한시가 사백여 편이 된다. 스님은 한시집의 내용을 스스로 '소소한 삶의 이야기'라 평했다. '가랑비는 청산을 지나고'에 소박素朴이 피어나고,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함'에 해행보살解行菩薩의 기운이 보이며, '서툰 듯 읊는 벗들과의 만남'에는 세속의 정情 속에 청정각명淸淨覺明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노치허 선생의 해설 중에서



글. 묵암 강대인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610쪽 | 27,000원

BBS-TV에서 만난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을
책으로 만나게 됩니다.
禪과 명상이 총망라된 선명상의 표준교과서,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입니다.

월호스님의
게송
명상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글. 월호 |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240쪽 | 18,000원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2층 Tel. 051-255-0263 / Fax. 051-255-0953 /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